

■ 군산진포초, KBS기 씨름판 ‘싹쓸이’

2014-12-12 19:25

이경신 감독 열정 지도 2년차 가파른 성장



군산진포초 씨름부가 제31회 KBS기 초등 장사씨름대회에서j 시상식 후 포효하고 있다.

군산진포초등학교(교장 류성환) 씨름부가 KBS기 전북 초등학생 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학년별 경기 우승 등 ‘싹쓸이’ 를 하며 크게 포효했다.

김제자영고 씨름장에서 열린 제31회 KBS기 전북 초등학생 장사씨름대회에서 군산진포초 씨름부는 단체전 우승을 거머쥘데 이어 학년별 경기인 4학년부에서 허경이, 5학년부에서는 김도연이 각각 왕좌에 올랐다.

또 6학년부에서 김시원은 3위를 차지하는 등 전북도 초등 씨름판의 강자로 급부상 했다.

진포초 씨름부는 지난달 29일 전주신흥고 씨름장에서 열린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라북도 대표 1차 선발전에서도 1위 4체급, 2위 1체급, 3위 3체급 등 도내 초등 씨름팀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올린 데 이어 이번 전주KBS기 마저 싹쓸이 해 소년체전 도대표 선발 등 2015년 시즌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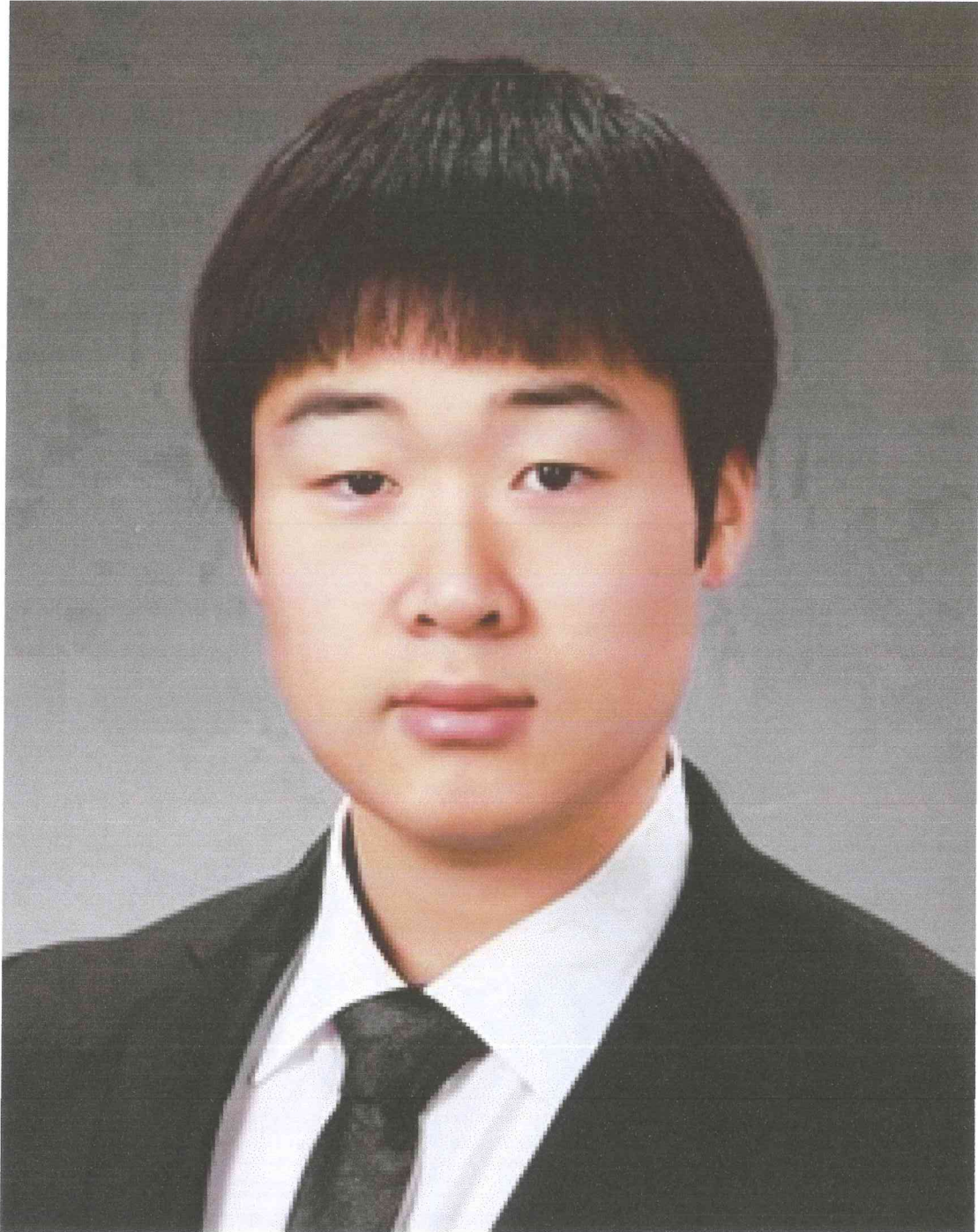
불과 보름도 채 안된 사이에 군산진포초 씨름부는 2개 대회에서 연속 굵고 큰 포효로 도내 씨름판을 호령했다.

군산진포초의 씨름이 이처럼 강력한 팀으로 급부상한 데는 지난해부터 순회코치로 진포초 씨름부를 지도하고 있는 군산시민체육회 소속 이경신 감독의 성실하고 뛰어난 지도력이 그 중심에 있다.

또한 김원태 군산교육장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진포초 류성환 교장 등 교육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군산시민체육회 박태수 상임부회장 및 관계자들의 협력, 군산시씨름협회 임영휘 회장 및



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만들어진 ‘힘’의 결실이어서 한층 더 의미가 크다.



진포초 씨름부 이경신 감독

이경신 감독은 하루 일과 중 오전에는 군산시민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오후 시간에 시민체육회의 배려로 진포초에서 매일 씨름을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들을 위해 모든 수업을 마친 후 인성을 바탕으로 한 씨름 기술 전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군산시씨름협회 임영휘 회장은 “2년여 동안 지켜본 바 이경신 감독의 성실함과 특히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지도는 정말씨름을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평가가 군산씨름협회 임원 모두의 생각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감독은 “우선 씨름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교육당국과 군산시민체육회 그리고 군산시씨름협회 등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은 결과이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도를 잘 따라준 학생들이 고맙고, 앞으로도 군산의 씨름 발전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성원에 보답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학생들이 씨름판에서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하고 기량을 익히는 순간에는 집중력 있게 진지한 모습으로 열심히 임하는 자세들이 무척 사랑스럽다며, 이러한 자세가 좋은 성과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씨름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황량한 군산의 씨름판에 우리 고유의 민속 경기인 씨름의 씨앗을 심고 가꾸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진포초 씨름부의 가파른 성장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군산의 씨름판은 내년 봄 실내씨름장을 갖추고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의 학생씨름교실을 비롯한 씨름 인구 저변 확대와 민속 씨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도 활발하게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석주 기자 (ju-stone@hanmail.net)